



Original Artic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Personal Satisfaction with Life in Grandmothers Parenting Grandchildren*

Kim, Moon Jeong

Part-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Ulsan

손자녀 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 구조모형*

김 문 정

울산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nstruct and te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life satisfaction in grandmothers who were parenting grandchildren. **Methods:** Grandmothers assuming part-time parenting responsibilities for grandchildren were recruited in four cities in South Korea. They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through face to face interviews or self reports, and 248 data units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Model fit indices for the final model revealed a fit at an excellent level, and all of the 12 path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ining 51% of the variance.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final model were parenting efficacy, perceived health status, parenting stress, amount of parenting, and demographic factors. The new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atisfaction with life of part-time parenting grandmothers was less than that of non-parenting grandmothers. Second,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revealed determinants to life satisfaction. Third, motivation of parenting and amount of parenting affect both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Conclusion:** The value of parenting and the grandmother-adult children rela-

tionship quality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developing a grandmothers' educational program, because these are the factors which strengthen parenting efficacy and alleviate parenting stress.

Key Words : Life, Personal satisfaction, Parenting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양질의 보육시설 부족과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으로 맞벌이 부부는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개별 대리양육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대리양육자 가운데 조부모 이외의 다른 친인척이나 비혈연 양육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취업 모를 둔 6세 이하 아동의 41%가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으

주요어 : 생활만족도, 부모역할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Moon Jeong, 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Ulsan, 102 Daehak-ro, Nam-gu, Ulsan 680-749, Korea.
Tel: 82-52-259-1235, Fax: 82-52-259-1236, E-mail: mjj7955@hanmail.net

*본 논문은 2007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임.

투고일 : 2009년 7월 16일 1차심사완료일 : 2009년 8월 6일 게재확정일 : 2009년 9월 4일

며, 그 가운데 대부분은 조모의 손에서 자라고 있다(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조모는 손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자녀와 손자녀로부터 정서적인 보상을 얻기도 하지만, 양육 역할에 따르는 부담으로 신체건강이 악화되거나 자녀와의 관계갈등으로 심리건강이 저하되기도 하며(Kim, 2007), 일반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기도 한다(Bae, 2006).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가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는 조모의 삶을 넘어서 손자녀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Crnic & Greenberg, 1990), 조모의 생활만족도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를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즉 손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조모의 생활만족도가 낮으면 손자녀를 효율적으로 양육할 수 없게 되어 조모가 양육하는 손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문제를 초래하게 되며 3세대 가족의 기능도 원활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조모의 건강과 손자녀의 성장과 발달, 3세대 가족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 및 심리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는 조모의 인구학적 요인(Bae, 2006; Oh, 2007), 신체건강(Bae, 2006; Oh, 2007)과 심리·사회 건강(Bae, 2006; Crnic & Greenberg, 1990; Oh, 2007), 손자녀 특성(Bae, 2006), 양육 조건(Seo, 1995) 등을 관련 요인으로 규명하였다. 하지만 이들 관련 요인들을 통합하여 그 관계를 살펴본 연구(Bae, 2007)는 자녀세대가 이탈된 조손 가족의 조모들을 대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3세대 가족의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삶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동일 문화권내 다른 세대 간에도 양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므로(Strom et al., 1999) 조모의 생활만족도는 보편적인 단일 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같은 양육자라 할지라도 어머니나 조손 가족의 조모와는 다른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3세대 가족의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간호중재를 마련함에 있어서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간호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를 기초로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모형을 구축한다.
- 구축된 모형과 실제 자료 간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3. 연구의 이론적 기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문헌고찰에 근거하여 조모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인구학적인 요인, 손자녀 양육동기 등의 개인적인 특성과 손자녀 기질, 양육역할 수행 정도, 지각된 가족의 도움 등의 양육의 조건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라는 매개 변수를 거쳐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즉 조모의 생활만족도는 개인적인 특성과 양육의 조건에 따라 직접 결정되기도 하지만 양육과 관련된 심리사회 요인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매개를 통해서도 결정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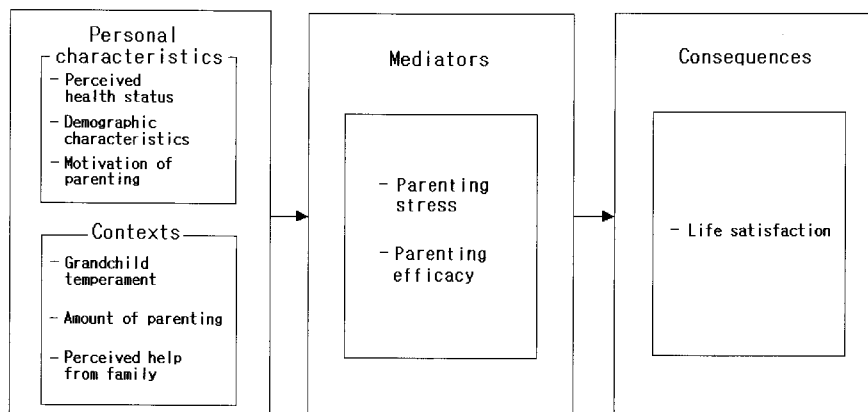


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study.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관련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횡단적 구조모형 검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취업모인 딸이나 며느리를 대신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손자녀를 양육한다 함은 조모가 손자녀와 동거하면서 돌봐주거나, 따로 살더라도 일주일에 5일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손자녀의 어머니(딸이나 며느리)가 취업모인 자
- (막내)손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자
- 연령이 51~74세인 자
- 도시지역 거주자
- 본 연구의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3. 연구도구

1) 일반적 사항

자가보고형 설문지에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상태, 종교, 주거상태, 현재 양육중인 손자녀의 수, 막내 손자녀의 연령, 양육 기간, 양육 시간을 포함하였다.

2) 지각된 건강상태

Mossey와 Shapiro(cited in Kim, 1992)가 개발한 'self-rated health status'를 Kim(1992)이 우리말로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가능한 총점은 3~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2$ 였으며 본 연구에서 .78이었다.

3) 손자녀 양육 가치

'손자녀 양육 가치'는 조모가 손자녀 양육에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한국 어머니의 자녀가치 요인구조

(Kim, Park, & Kwon, 2005)를 바탕으로 개발한 5개 항목의 도구로, 박사과정생 3인에게 의뢰하여 예비도구의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조사하고 애매모호하거나 어려운 문구를 수정한 다음에, 2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에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점수는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을 부여하였으며, 가능한 총점은 5~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손자녀 양육에 부여하는 가치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4) 부모-자녀 관계의 질

자녀와의 관계에서 얻는 만족감, 가까움, 관심과 대화의 정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Shin(2004)의 '관계의 질' 도구를 사용하여, 조모와 상호작용이 많은 손자녀의 어머니와의 관계의 질을 조사하였다. 4개 항목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는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4점을 부여하였다. 가능한 총점은 4~1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 .91이었다.

5) 손자녀 기질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Pridham, Chang과 Chiu(cited in Bang, 2001)가 개발한 'what my baby is like(WBL)'를 Bang(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영아뿐만 아니라 유아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항목을 수정하였으며, 노인도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5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점수는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을 부여하였다. 가능한 총점은 18~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쉽게 달래지고, 주의가 지속적이며, 밀착과 반응, 적응을 잘 해서 긍정적인 기질을 가진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Bang(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0.75였다.

6) 양육역할 수행 정도

Seo(1995)의 '손자녀 양육역할 수행 정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양육의 역할을 경제적 조력역할, 신체적 조력역할, 도덕적 교육역할, 지적·정서적 조력역할 등 4개의 하부요인으로 구분하여 11개 항목으로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도구이다. 점수는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4점을 부여하였다. 가능한 총점은 11~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Seo(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84였다.

7) 양육과 가사에 대한 도움 지각

손자녀 양육과 가사에 대한 가족의 물리적인 도움에 조모가 만족하는 정도를 묻는 2개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손주 양육에 대한 가족의 도움에 만족하십니까?”와 “가사에 대한 가족의 도움에 만족하십니까?”로 점수는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을 부여하였다. 가능한 총점은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도움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였다.

8) 양육스트레스

Kim과 Chung(2008)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우리나라 조모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연령에 맞는 양육스트레스 도구의 필요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건강문제, 역할의 대체 가능성, 자녀와의 관계, 손자녀 특성, 사회생활 제한 등의 5개 하부요인과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을 부여하였다. 가능한 총점은 15~75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75$ 였고 본 연구에서 .79였다.

9)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6개 항목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Shin과 Chung(1998)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점수는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을 부여하였다. 가능한 총점은 9~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이다.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80이었다.

10) 생활만족도

Yoon(1982)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심리적 적응, 정신건강의 수준, 심리적 안녕 등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생활만족도’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20개의 항목들이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 등의 4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3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는 ‘아니다’에 0점, ‘그저 그렇다’에 1점, ‘그렇다’에 2점을 부여하였다. 가능한 총점은 0~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개발당시 기우반분법에 의한 신뢰도가 $r = .94$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8년 7월 25일부터 2008년 9월 10일까지 실시

하였다. 자료수집에는 본 연구자와 현직 간호사 3인, 간호대학원생 2인, 간호대학생 2인이 조사원으로 참여하였다. 수도권에서는 4인의 조사원들이 서울과 부천의 S병원과 분당의 P병원에서 자녀를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맡긴 간호사를 통해 조모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가보고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외 지역에서는 4인의 조사원들이 보건소나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에서 대상자를 만나거나, 지인에게 소개받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면대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간호사의 어머니와 일반 노인의 비율이 비슷하게 표본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2008년도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조사원이 이 같은 내용을 대상자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자가점검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 15.0과 AMOS/WIN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특성과 연구변수는 기술 통계를 이용하였다.
- 연구변수의 다변량정규성에 대한 검정은 일변량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였다.
-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구조모형의 모델추정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조모의 평균 연령은 60.5세로 중년기(51~65세)가 대부분(81.1%)을 차지하였고 노년기(66~74세)는 18.9%에 불과하였다. 조모의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중퇴나 졸업이 31.9%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중퇴나 졸업 이상은 34.7%였다. 대부분(74.2%)의 조모가 유배우자 상태였으며 사별한 경우는 20.6%였다. 양육수고비를 제외한 조모와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원으로, 31.9%는 소득이 전혀 없었고, 40.7%는 200만원 미만이었으며, 27.4%는 200만원 이상이었다. 조모의 종교는 불교(41.9%)와 기

독교(26.6%)가 대부분이었다.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동기는 보육시설의 부족이나 타인양육에 대한 불신인 경우(45.1%)와 자손에 대한 의무감과 애정인 경우(44.4%)가 유사한 분포를 차지하였다. 손자녀의 집과의 거리는 같은 집에 사는 경우(10.9%)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차로 1시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2.8%) 1시간 이상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36.3%).

조모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의 수는 대부분 1명(62.5%) 내지 2명(35.1%)으로, 친손자녀(45.2%)보다 외손자녀(52.8%)가 조금 더 많았으며, 막내 손자녀의 연령은 대부분(87.1%) 4세 이하였다. 조모의 손자녀 양육시간은 하루 평균 12.8 ± 7.4 시간으로, 7~12시간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1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33% 가운데 약 78%가 휴식이나 개인적인 시간 없이 24시간 동안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조모가 손자녀 양육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로부터 받는 수고비의 액수에 상관없이 그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55.7%)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18.9%)보다 월등히 많았다.

2. 생활만족도 및 관련 요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자료의 다변량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든 측정변수의 일변량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모든 일변량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3 미만, 10 미만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자료는 다변량정규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설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조방정식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9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는 양육도움과 가사도움 간의 $r = .75$ 였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생활만족도 가설모형의 분석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결과, 17개의 경로 중에서 8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나머지 9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설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나타낸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2)을 보면, 양육스트레스는 59%, 양육효능감은 55%, 그리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는 51% 설명되었다.

가설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경로 가운데 지각된 건강상태($t = -5.65$)와 인구학적 요인($t = -1.70$), 지각된 가족의 도움($t = -2.81$)이 양육스트레스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경로는 손자녀 양육동기에서 양육효능감으로 가는 경로($t = 4.94$)만 유의하였다. 그리고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경로는 지각된 건강상태($t = 4.12$)와 인구학적 요인($t = 2.11$), 양육역할 수행 정도($t = -2.93$), 양육효능감($t = 2.55$)에서 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가설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경로는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경로는 손자녀 양육동기($t = -0.95$)와 손자녀 기질($t = -1.05$), 양육효능감($t = -0.62$)에서 양육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였다.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경로는 지각된 가족의 도움($t = -0.35$)과 양육스트레스($t = 0.18$)에서 양육효능감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경로는 손자녀 양육동기($t = 0.47$)와 손자녀 기질($t = 0.20$), 지각된 가족의 도움($t = 0.59$), 양육스트레스($t = -1.55$)에서 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가설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test에서 영가설은 기각되었으나, 그 외 적합지수들을 통해 볼 때 모형이 그 자체로도, 그리고 기초모형과 비교해 볼 때도 자료를 우수한 수준에서 적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Table 1). 이상의 결과에 대한 가설모형의 경로도형은 Figure 2와 같으며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4. 생활만족도 가설모형의 수정

최대우도법은 모형 내의 모든 방정식에 대한 정보를 한데 묶어서 동시에 계산하는 완전정보기법(full information technique)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모형 내의 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모형

Table 1. Comparison of model fit between the hypothetical model and the modified model

Fit index	χ^2	df	p	RMSEA	GFI	TLI	CFI	Normed χ^2	PCFI
Hypothetical model	60.39	40	.02	.04	.97	.95	.97	1.51	.50
Modified model	55.14	46	.17	.03	.97	.98	.99	1.20	.58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GFI, goodness of fit index; TLI, turker 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PCFI, Parsimonious comparative fit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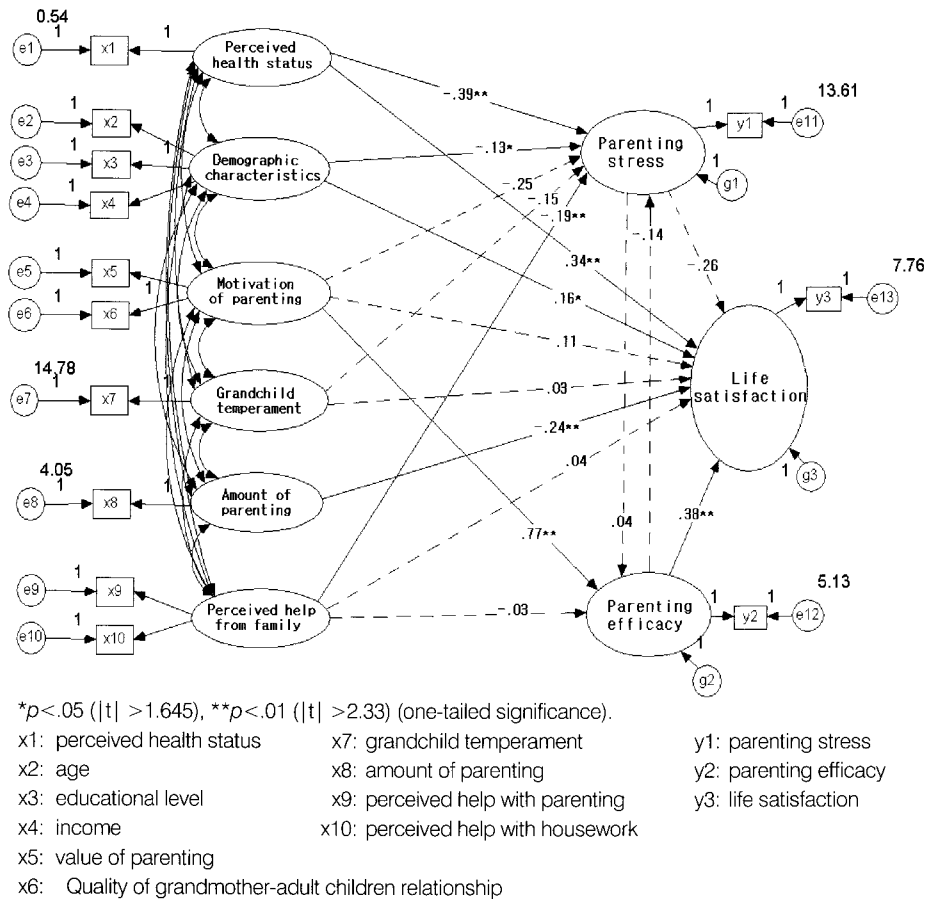


Figure 2. Path diagram for the hypothetical model.

내의 다른 곳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하나의 모수를 수정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 후 다시 다른 모수를 수정하였다. 즉 critical ratio(CR)가 낮은 손자녀 기질과 양육효능감에서 양육스트레스로 가는 경로, 지각된 가족의 도움과 양육스트레스에서 양육효능감으로 가는 경로, 손자녀 양육동기와 손자녀 기질, 지각된 가족의 도움에서 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 등 7개의 경로를 고정하였다. 그리고 회귀계수 가운데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와 모수변화(parameter change)가 모두 높은 양육역할 수행 정도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으로 가는 2개의 경로를 자유화하였다.

5. 생활만족도 수정모형의 분석

수정모형의 모수추정치를 검토하였는데 음오차분산이나 위반추정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정모형에서 설정된 12개의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수추정치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또한 수정모형의 다중상관지수(SMC)을 보면 양육스트레스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인구학적 요인, 손자녀 양육동

기, 양육역할 수행 정도, 지각된 가족의 도움에 의해 68%가 설명되고 있으며, 양육효능감은 손자녀 양육동기와 양육역할 수행 정도에 의해 55%가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인구학적 요인, 양육역할 수행 정도,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에 의해 51%가 설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모형에서 SMC가 0.4 이상이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정모형은 내생변수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생활만족도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특히 기준이 엄격하여 기각되기 쉬운 χ^2 -test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이 자료와 적합하다는 영가설이 채택되었다. 그 외 적합지수를 보면 수정모형은 그 자체로도, 기초모형과 비교해 볼 때도 매우 우수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Table 1). 따라서 모형의 수정을 통해 적합도와 간명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 경로의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의 비교보다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관

Table 2. Regression weights for the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RW	SE	SRW	CR	SMC
Parenting stress	Perceived health status	-1.91	0.37	-0.37**	-5.18	0.68
	Demographic characteristics	-1.77	0.84	-0.17*	-2.12	
	Motivation of parenting	-2.91	0.48	-0.67**	-6.05	
	Amount of parenting	0.30	0.14	0.19*	2.17	
	Perceived help from family	-1.42	0.61	-0.16*	-2.32	
Parenting efficacy	Motivation of parenting	1.79	0.28	0.65**	6.37	0.55
	Amount of parenting	0.15	0.09	0.16*	1.77	
Life satisfaction	Perceived health status	1.80	0.45	0.32**	4.04	0.5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1.54	0.82	0.14*	1.88	
	Amount of parenting	-0.36	0.12	-0.22**	-2.93	
	Parenting stress	-0.28	0.10	-0.26**	-2.78	
	Parenting efficacy	0.68	0.15	0.40**	4.42	

* $p < .05$ ($|t| > 1.645$), ** $p < .01$ ($|t| > 2.33$) (one-tailed significance).

RW, regression weights; SE, 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RW,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Table 3. Effect decomposition for the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DE	SIE	STE
Parenting stress	Perceived health status	-0.37		-0.37
	Demographic characteristics	-0.17		-0.17
	Motivation of parenting	-0.67		-0.67
	Amount of parenting	0.19		0.19
	Perceived help from family	-0.16		-0.16
Parenting efficacy	Motivation of parenting	0.65		0.65
	Amount of parenting	0.16		0.16
Life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0.26*		-0.26*
	Parenting efficacy	0.40**		0.40**
	Perceived health status	0.32**	0.10*	0.4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0.14*	0.05*	0.19*
	Perceived help from family		0.04*	0.04*
	Amount of parenting	-0.22*	0.01	-0.21**
	Motivation of parenting		0.43**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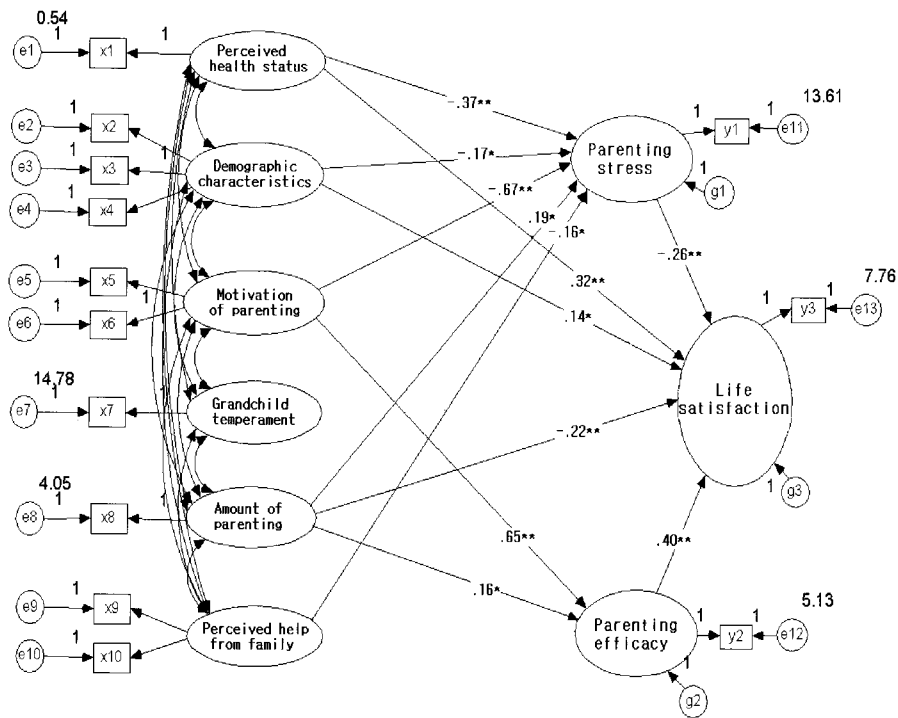
* $p < .05$ ($|t| > 1.645$), ** $p < .01$ ($|t| > 2.33$) (one-tailed significance).

SDE, standardized direct effect; STE, standardized total effect; SIE,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심이 있으므로 표준화회귀계수(SRW)로 효과의 크기를 분석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지각된 건강상태와 인구학적 요인, 양육역할 수행 정도는 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준 직접효과는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보다 훨씬 컸다. 그리고 손자녀 양육동기와 지각된 가족의 도움은 생활만족도에 간접효과만 주었다. 정리하면 생활만족도 관련 요인들의 총효과는 손자녀 양육동기가 간접효과일지라도 가장 강력하였으며 지각된 건강상태와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양육역할 수행 정도, 인구학적 요인, 지각된 가족의 도움 순으로 총효과가 컸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수정모형의 경로도형은 Figure 3과 같다.

논 의

본 연구의 최종 구조모형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인구학적 요인, 손자녀 양육동기, 양육역할 수행 정도, 지각된 가족의 도움에 의해 68%의 변량이 설명되었고, 양육효능감은 손자녀 양육동기와 양육역할 수행 정도에 의해 55%의 변량이 설명되었다. 그리고 생활만족도는 지각된 건강상태, 인구학적 요인, 양육역할 수행 정도,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등의 직접요인과 지각된 건강상태, 인구학적 요인, 지각된 가족의 도움, 손자녀 양육동기 등의 간접요인에 의해 51%의 변량이 설명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모의 생활만족도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3세대 가족의 조모



* $p < .05$ ($|t| > 1.645$), ** $p < .01$ ($|t| > 2.33$) (one-tailed significance)

- x1: perceived health status
- x2: age
- x3: educational level
- x4: income
- x5: value of parenting
- x6: quality of grandmother-adult children relationship
- x7: grandchild temperament
- x8: amount of parenting
- x9: perceived help with parenting
- x10: perceived help with housework
- y1: parenting stress
- y2: parenting efficacy
- y3: life satisfaction

Figure 3. Path diagram for the modified model.

나(Oh, 2007), 조손 가족의 조부모(Kim & Kim, 2004)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여성노인(Jung & Cho, 2005)이나 재가노인(Kim & Kwon, 200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직접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조모를 대상으로 한 Oh(200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지금까지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목받아온 양육효능감이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새롭게 검증되었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의 양육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손자녀에게 행복한 환경을 제공하는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하는(Kim, 2007) 양육효능감이 주변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자기효능감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자기효능감은 잘 알려진 대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Bae, 2007).

지각된 건강상태는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준 직접요인이었는데, 선행연구들도 건강에 대한 지각이 일반 노인 및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Kim & Kim, 2004; Oh, 2007; Seo, 1995; Smith et al., 2001)와 심리적인 불편감(Kelley et al., 2000)에 영향을 준다는 일관된 결과를 나타낸 바, 조모들에게 있어 건강상태의 중요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손자녀 양육스트레스가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지만(Kim & Kim, 2004), 이에 반하는 연구결과들(Crnic & Greenberg, 1990; Oh, 2007)도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후자에서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인 parenting daily hassles(PDH)가 양육스트레스를 양육과 부모-아동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사건들로 매우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부모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아동 학대의 위험이 증가하고 역기능적인 부모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Abidin, 1990)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조모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손자녀의 안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간호중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양육역할 수행 정도는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1995)는 양육시간이 길고 수행 정도가 높을수록 역할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나, 이는 양육역할의 만족도를 '양육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나 행복감'으로, 즉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할 때의 만족-불만족으로 보는 단일차원적인 접근을 한 것에 기인된 결과라고 본다. 그리고 조모의 양육역할 수행 정도를 자녀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라고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노부모와 자녀 간의 지원 교환에서 자녀에게 집안일을 거드는 등의 도구적 지지를 빈번하게 제공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선행연구(Lee, 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손자녀 양육가치로 측정된 손자녀 양육 동기는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간접요인이었지만 그 효과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다. 조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손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Seo, 1995)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손자녀 양육가치와 함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줌으로써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조모는 성인자녀와의 애정과 친밀감, 상호협조하는 관계가 조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가치(value)는 교환에서 얻은 보상의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Burr, 1973), 조모가 손자녀 양육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면 부모-자녀 관계를 보상이 많은 관계로 인식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이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부모-자녀 관계를 보상이 적은 관계로 인식하여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Lavers & Sonuga-Barke, 1997).

마지막으로 가족으로부터 제공받은 도구적 지원에 대한 지각은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양육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Shin & Chung, 1998; Teti & Gelfand, 1991), 생활만족도(Marshall, 1990)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사회적 지원의 출처와 사회적 지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가족에게 제공받은 도구적 지원의 영향을 보고자 한 본 연구와 단순한 비교가

어렵다. 총사회적 지지가 아닌 사회적 지지의 종류별로 그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정서적, 평가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Crockenberg, 1987), 정서적 지지는 노인의 생활만족도(Jung & Cho, 2005)에, 도구적 지지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Kelley et al., 2000)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할 때 가족이 손자녀를 맡아주고 가사를 도와주는 등의 신체적인 도움은 주로 양육스트레스를 중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며, 사회적 지원의 종류별로 어떠한 중재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손자녀의 기질은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기질은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Butler & Zakari, 2005)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하지만 기질적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문제를 가진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한부모 가족의 부모보다 낮고 양부모 가족의 부모와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Roithmayr, 2001),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을 키우는 조부모는 건강한 아동을 키우는 조부모와 비교해 우울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Force et al., 2000)는 결과들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조모 간에는 아동의 기질이나 정서·행동적 문제를 받아들이는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요인이 양육자의 아동의 평가에 차이를 야기하며, 이러한 차이가 아동의 발달에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은 심리적인 보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심리적인 대가로 작용하여 생활만족도라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틀인 사회교환이론은 조모, 성인자녀, 그리고 손자녀 간의 상호관계를 통한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도가 있다고 본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독립요인은 손자녀 양육가치와 부모-자녀 관계의 질로써, 사회교환이론에도 가치는 보상과 대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바, 추후 양육이론의 개발을 위해서는 가치적인 측면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총 효과가 가장 컸던 손자녀 양육동기를 증진시키는 프로그

램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 자녀들에게 조모가 경험하는 양육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즉 개인주의 가치를 가진 자녀세대에게도 조모가 가진 가족주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움을 주는 조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제공받은 지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마움을 느낄 때 보람을 느끼며 이것이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자녀 양육에 조모가 부여하는 가치가 양육의 동기로 작용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조모가 손자녀 양육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의 풍토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자손을 확대된 자아로 인식하고 자녀의 성공을 뒷바라지하는 조모의 사랑을 무조건 폄하하기보다, 손자녀 양육의 가치와 의미,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재평가함으로써 개인주의와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 간에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독립변수는 지각된 건강상태였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지각하면 생활만족도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양육 능력도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건강증진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처럼 취업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은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손자녀 양육에 투자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통한 간호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건강 조사 및 건강관리 자원의 이용 실태와 요구도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역할 수행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족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의 도움이 조모의 양육역할 수행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가족 내 양육과 가사를 분담하는 규칙을 마련하고 가족구성원 개인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도 요구된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에게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손자녀 양육동기가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 조모들의 독특한 양육특성으로 사료되는 바, 이

의 활용을 위해 개념 정립과 함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예비 혹은 현재 양육을 맡고 있는 조모들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pediatric*.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ng, K. S. (2001). Confirmatory analysis of infant temperament inventory(WBL; What my Baby is Like). *Korean Parent-Child Health J*, 4(2), 32-41.
- Bae, J. H. (2006). *Impa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focusing on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Bae, N. R. (2007).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peop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 Burr, W. R. (1973).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New York: John Wiley & Sons.
- Butler, F. R., & Zakari, N. (2005). Grandparents parenting grandchildren: Assessing health status,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s. *J Gerontol Nurs*, 31(3), 43-54.
- C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 61(5), 1628-1637.
- Crockenberg, S. (1987). Predictors and correlation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s. *Child Dev*, 58(4), 964-975.
- Force, L. T., Botsford, A., Pisano, P. A., & Holbert, A. (2000). Grandparents raising children with and without a developmental disability: Preliminary comparisons. *J Gerontol Soc Work*, 33, 5-21.
- Jung, T. Y., & Cho, E. Y. (2005). An examination of variables influencing loneliness and life-satisfaction of the aged: With focus on emotional support. *J Korea Gerontol Soc*, 25(1), 55-71.
- Kelley, S. J., Whitley, D. M., Sipe, T. A., & Yorker, B. C. (2000). Psychological distress in grandmother kinship care provider. *Child Abuse Negl*, 24(3), 311-321.
- Kim, J. Y., & Kwon, B. S. (2007). The relationship of life stres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J Welfare Aged*, 37, 111-130.
- Kim, M. H., & Kim, H. S. (200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grandparent's life satisfaction in low income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J Korean Gerontol Soc*, 24(3), 153-170.
- Kim, M. J. (2007). A study of the caregiving burden on grandmother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A phenomenological research. *J Korean Acad Nurs*, 37(6), 914-923.
- Kim, M. J., & Chung, C. W. (2008). Development of a "grandmothering stress index" for Korean day-care grandmother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4(1), 56-65.
- Kim, S. Y. (1992). *Relationships between older persons' conceptualizations of time and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U. C., Park, Y. S., & Kwon, Y. E. (2005). Intergenerational analysis of family values among Korean mothers: With specific focus on values of children, socialization attitudes, and support of elderly parents. *Korean J Psychol Soc Issues*, 11(1), 109-142.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2005). *National Survey of Korean's Child Care*.
- Lavers, C. A., & Sonuga-Barke, E. J. S. (1997). Annotation: On the grandmothers' role in the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of grandchildren. *J Child Psychol Psychiatry*, 38(7), 747-753.
- Lee, H. S. (2003).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exchang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rural elderly: Sex and age group differences. *Int J Human Ecol*, 41(4), 57-69.
- Marshall, M. C. (1990). *Housework in dual-earner families: Does the division of labor make a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family lif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Provo.
- Oh, J. (2007). A structural model on the quality of life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Korean J Child Health Nurs*, 13(2), 201-211.
- Roithmayr, S. (2001). *Emotional distress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York, New York.
- Seo, B. S. (1995). *A study on the surrogate parenting and satisfaction of grand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hin, H. Y. (2004). The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s and their effects on the relationship quality of mothers (in-law) and their caregiving daughters (in-law). *J Korean Fam Relations Assoc*, 9(3), 33-54.
- Shin, S. J., & Chung, M. J. (1998).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Korean J Child Stud*, 19(1), 27-42.
- Smith, J., Fleeson, W., Geiselmann, B., Settersten Jr., R. A., & Kunzmann, U. (2001). Sources of well-being in very old age. In P. B. Baltes, & K. U. Mayer (Eds.), *The Berlin aging study: Aging from 70 to 10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om, R. D., Strom, S. K., Wang, C. M., Shen, Y. L., Griswold, D., Chan, H. S., et al. (1999). Grandpar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China: A comparison of generations and cultures. *Int J Aging Hum Dev*, 49(4), 279-317.
- Yoon, G. (1982). *Construction of the life satisfaction scale for the aged*. Proceedings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26-30.